

정 정 신 고 (보고)

2025년 7월 24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집합투자규약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17년 10월 17일
3. 정정사항
- 종류 수익증권 신설 (종류 A1)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(신설)	종류A1: EN484
제3조(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~ ② (생략) 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1. (생략)  2. (신설)  2. ~ 15. (생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 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1. (현행과 같음)  2. 종류A1 수익증권 : 제한없음  3. ~ 16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익증 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 (생략)  1. (생략)  2. (신설)  2. ~ 15.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  1. (현행과 같음)  2. 종류A1 수익증권  3. ~ 16. (현행과 같음)
제39조(투자신탁보수)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 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	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 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 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

	<p>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신설)</p> <p>2. ~ 15. (생략)</p>	<p>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종류A1 수익증권 :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.3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3.5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3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18</p> <p>3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
제40조(판매수수료)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신설)</p> <p>2. ~ 15. (생략)</p> <p>④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신설)</p>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종류A1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00분의 0.5 이내</p> <p>3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후취판매수수료는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금액(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종류A1 수익증권 : 없음</p>

	2. ~ 15. (생략)	3. ~ 16. (현행과 같음)
부 칙	(신 설)	<u>부 칙</u> 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5년 7월</u> <u>31일부터 시행한다.</u>

true friend

한국투자 신탁운용